

# 신석기 시대 대외 교류 신석기인, 길을 떠나다



부산 동삼동 유적 출토 흑요석과 조개팔찌  
/ 부산박물관 /

## 1 개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변 혹은 원거리의 집단과 다양한 형태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등의 사이에서 교류와 교역이 이루어졌다. 그 수단으로는 바다, 하천, 육로를 통한 다양한 루트가 있으며, 교역은 교환, 전파, 이주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고고학에서 교류나 교역의 양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가 남아있어야 하는데, 동·식물 자료와 그 당시 문화·사상 등 정신세계의 산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한 유물(토기·석기·뼈 도구 등)과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 낸 흔적(유구)에서 찾아야 한다. 선사 시대 유물 중 교류와 교역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집단의 유물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 모방한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신석기 시대의 대외 교류와 관련된 지역은 우리나라의 남해안 지역과 일본의 규슈 지역이 대표적이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바다라는 장애 요인과 서로 다른 신석기 시대의 토기 문화를 지니고 있어, 유물을 통한 교류와 교역을 양상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남해안 지역의 신석기 시대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을 살펴보면, 주로 외양성 어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동시기의 일본 규슈 지역에서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이후 신석기 시대 중기 이후가 되면, 일본 규슈 지역에서 활발한 외양성 어업이 행해지게 되며, 동시기 우리나라의 남해안 지역에 규슈 지역의 유물이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시기의 흐름에 따라 교류의 대상에도 변화를 보이는데, 이른 시기에는 토기와 석기, 석재, 뼈 도구 등 생업 도구를 중심으로 교류와 교역이 행해진다. 그러나 중기 이후에는 조개 팔찌, 치레걸이와 같은 장식품이 중심이 된다. 두 지역은 이러한 밀접한 교류와 교역의 결과로 생업 도구 뿐 아니라 조개 가면, 토우(사람·동물), 조개 팔찌 착용 등 유사한 정신적인 세계관 혹은 의례적인 면에 있어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 2 신석기 시대 대외 교류(교역)의 시작

우리나라의 남해안 지역과 일본의 규슈 지역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에 있어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두 지역에는 모두 외양성 어업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